

[시승기] 여전히 'Hej Familj', 볼보 S90 B6 AWD

✎ 최정필 기자 | 📅 승인 2024.11.14 08:00



탈 때마다 한결같은 느낌을 주는 차가 있다. 나쁜 관점으로 본다면 발전 없이 고여있는 사골같다는 뜻이지만, '만족감'을 줄 수 있다는 건 차원이 다르다. 특히 요즘처럼 변화가 빠를 때는 더더욱 그렇다.

이번에 시승한 볼보 S90은 2016년 공개된 2세대 모델을 기반으로 한다. 2020년 2월 부분변경을 거쳤고, 중간중간 연식 변경을 통해 상품성을 개선했지만 출시된지 8년이나 지났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S90은 타는 이들에게 한결같은 만족감을 주는 모델이다.

외관은 현재를 대표하는 디자인이다. 조만간 전기차 라인업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근대의 볼보를 이야기할 때 바로 떠오르는 모습의 결정체다. '토르의 망치'로 불리는 헤드램프는 여전히 목적이 분명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을 자랑한다. 화려한 기교보다 정제된 디자인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이를 완성했을 때는 얼마나 훌륭한지 보여주는 좋은 예시다.



특유의 담백함은 헤드램프를 넘어 S90의 전신에 묻어있다. 기괴하거나 혹은 강렬하거나. 특유의 캐릭터를 강조하기 바쁜 요즘 트렌드와 비교하면 단순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시종일관 담백함으로 이끌어 나가는 디자인은 그릴부터 범퍼, 보닛, 사이드 가니쉬를 넘어 테일램프에 이르기까지 한가지 맛을 낸다. 물론 기술과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전구 타입 램프를 순차점등식 LED로 바꾸는 등 소소한 변화가 들어갔다. 하지만 이 정도는 원재료 수급 환경이 바뀔에 따라 레시피를 수정했을 뿐, 본연의 담백함은 그대로 유지해냈다.

최상위 모델 라인업인 '90 클러스터' 중에서도 세단 모델을 의미하는 'S'가 붙으며 볼보가 추구하는 안락함이 극대화된 덕분이다. 이것을 기준으로 다재다능함을 원한다면 V90 크로스컨트리를, 모험을 원한다면 XC90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니까 S90은 볼보가 추구하는 것을 가장 잘 담고 있는 모델이라는 뜻이다.



그렇기에 실내는 담백함에 포근함이 더해졌다. 정갈한 무늬로 다듬은 우드 트림, 이를 받쳐주는 크롬 장식은 화려함보다는 묵직한 따뜻함을 전한다. 변속기 레버의 오레포스 크리스탈은 1열의 중심에서 빛을 내는 '킥 포인트'다.

세로형 9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는 과하지 않다. 최근 출시되는 차들이 경쟁하듯 대화면 디스플레이를 적용하고, 물리버튼을 없애며 모든 기능을 터치 기능으로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구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첨단화가 오히려 편리한 사용을 막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절묘함을 자랑한다.

여기에 티맵과 함께 개발, 적용한 '티맵OS' 기반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수차례의 OTA 업데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최신화를 진행했다. 덕분에 처음 출시 당시보다 '아리아' 음성인식 기능의 반응 속도와 기능의 범위는 더욱 부드럽고, 다채로워졌다.



부분변경을 거치면서는 롱 휠베이스만 도입했다. 이는 S90의 가치를 올려주기에 충분한 선택이 됐다. 기존에도 결코 좁지 않은 실내 공간을 자랑했던 모델이다. 그러나 부분변경형이 되면서는 어지간한 대형 세단과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어졌다. 유럽 출신, 특히 독일제 세단들이 후륜구동 방식을 기반으로 하며 실내 공간이 비좁았던 것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겉으로 보고 몸으로 느끼는 품격과 편안함은 곧 소비자의 만족이 됐고, 선택으로 이어졌다.

2.0L 직렬 4기통 싱글터보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조합은 실용적이다. 발휘하는 성능은 최고출력 300마력 최대토크 42.8kg.m(B6 AWD 기준). 대형세단급 크기를 고려한다면 부족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차가 달리는 환경에선 충분한 성능이다. 최고시속 180km에서 안전을 위해 제한되는 속도도 넉넉하다.



그럼에도 달리는 성능은 발군이다. 부드럽게 이끌어가면서도 순간 폭발적인 가속을 보여준다. 노면의 충격은 부드럽게 흘러보내지만 그렇다고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귀공자가 정갈한 슈트 차림으로 전력질주를 하는데, 땀 한방울 흘리지 않는 모양새다. 비록 은퇴시기가 다가온 노장이지만, 전성기의 모습을 잃진 않았다. 말 그대로 '여전함'을 지키는 샘이다.

S90의 국내 판매 가격은 ▲B5 플러스 브라이트 6,400만원 ▲B5 울티메이트 브라이트 7,000만원 ▲B6 AWD 울티메이트 브라이트 7,400만원 ▲T8 AWD 울티메이트 브라이트 8790만원이다.



최정필 기자 choiditor@carmgz.kr